

“평동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억제하고 친환경 개발”

광주시, 난개발 우려 잇단 지적 수용 사업자 공모 지침 변경 장륙습지 연계 친환경 개발계획 수립 명시...공모기간도 연장

광주시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광주일보 2020년 11월 16일자 1면)이 일자 광주시가 아파트 위주 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 중심 개발을 통해 난개발 우려를 없애기로 했다.

23일 광주시는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시 친환경 개발 방향 등을 핵심으로 사업 목적을 보완하고 사업 계획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공모 지침을 변경, 공고했다.

시는 앞서 평동 준공업지역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신청자의 창의적이고 충실한 사업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 관련 설명회를 갖고 접수기한 연장 등 공모지침 일부 변경 내용을 전달

했다.

평동 준공업지역은 지역주민의 개발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곳으로, 주민 민원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헬스케어산업 등 광주시 미래전략산업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20일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다.

광주시는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내부협업 TF를 구성·운영하고, 공모지침서 일부를 변경·공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업목적 부분에 아파트 위주 개발이 아닌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 방향을 넣은 점이다. 광주시는 공모지침서 제3조 사업목적 부분에 ‘본 사업은 사업 대상지의 난개발을 방지하

고, 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억제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부지 인근 황룡강 장륙습지 등과 연계한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 개발 의향서 제출기업이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모기간을 당초 100일에서 120일로 20일 연장하고, 사업계획서 제출일을 2021년 1월29일에서 2021년 2월18일로 변경했다. 이 밖에 프로젝트회사 설립시점, 사업협약 해지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해 민간사업 신청자의 사업 참여조건도 명확히 했다.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TF에서 논의한 협의 결과를 반영해 이번 사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창의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 대통령 차관급 10명 인사... 교육 정종철·외교2 최종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교육부 차관급과 외교부 2차관 등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현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 대사,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는 윤형준 현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보안팀장이 내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문화재청장은 각각

김경배 현 기획조정실장과 순천 출신의 김현모 현 문화재청 차장이 승진했다. ‘아시아의 인어’로 불리었던 수영 국가대표 출신 최은희 차관은 1년 만에 문체부를 떠나게 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영범 현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통계청장에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차장이 발탁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배기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변영분과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엔 이재관 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기용됐다. 이번 차관인사는 집권 5년차를 앞두고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인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중앙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1심서 징역 4년 법정 구속

입시비리 유죄·횡령 무죄
조 前장관 “항소해 다투겠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중앙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영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중앙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하거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관련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걸려있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썼다. 그는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찌보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하겠다”고 끝맺었다.

/연합뉴스

한점의 그림, 코로나 시대 위안이었던길



김은영의
‘그림 생각’

(340) 아침신문

아마도 두 딸이 나를 기억하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신문 읽는 엄마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새벽 알람소리에 눈 비비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으로 나가 조간신문을 들고 와서 때로 아침밥 준비도 미룬 채 신문을 열독하기 때문이다.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서 가져온 신문더미는 잠자리에까지 따라와 부스럭거리 가족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어 느덧 옛날 사람이 되어선지 인터넷 뉴스보다는 활자로 인쇄된 종이신문을 보아야 비로소 하루를 정리할 수 있기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덴마크 화가로 사실주의와 상징주의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라우르스 안데르센 링(1854-

1933)의 작품 ‘아침식사 중’(1898년 작)를 처음 대했을 때 흡사 나의 모습인 것 같아 깜짝 놀랐다.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고 홀로 남은 식탁에서 음식에는 관심 없는 듯, 아니 혹은 아침신문을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이 닮았기 때문이다. 현실은 그림과 달리 이처럼 여유롭고 아름답지만은 않지만 말이다.

반짝이는 아침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밀려들어 와서 따스함이 가득하고, 신문 읽는 것에 집중하느라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는 인물을 따라 우리의 시선도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등 돌리고 있는 그림의 주인공처럼 관람자도 화면 속으로 들어가 아침신문을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영리하게 구성한 그림이다.

안데르센 링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 질랜드 링을 사랑해서 마을 생활과 그 시대 평범한 풍속을 담은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사람 사는 모습은 동서고금이 크게 다르지 않아 더욱 친밀하게 여겨진다.

한 점의 그림에서 시대와 역사를, 사회와 시대를 읽어보려 했던 ‘그림 생각’의 마지막 장은 스



안데르센 링 작 ‘아침식사중’
넙 사진처럼 일상의 한 장면을 포착한 그림으로 재운다. 그 어느 때보다 평범한 일상이 소중해진 시절, ‘그림 생각’의 긴 여정을 마치고 누군가의 글을 읽으며 행복을 느끼는 독자로 돌아오니 마주하는 그림이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 <끝>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지역주도 그린뉴딜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드론으로
광주시가 앞장서겠습니다.

